

사도세자 '恨' 과 정조 '孝' 용주사에 '응결'

51 22대 정조 - 건릉 (3)



용주사 승무제 모습.

조지훈의 절창, '승무'가 지어진 곳이 용주사(龍珠寺)이다. 용주사에서 펼쳐진 승무제를 여러 번 감상하고 2년에 걸쳐 완성한 시가 '승무'다. 용주사 승무제는 사도세자의 넋을 위로하는 진혼제다. 매년 10월에 열린다. 부자간인 사도세자 '이산'과 정조 '이산'의 비극과 효심이 용주사에 자욱이 서려 있다.

용주사는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화산(花山)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이다. 854년(문성왕 16)에 창건하여 952년(광종 3)에 소실된 갈양사(葛陽寺)의 옛터에 창건된 사찰이다.

갈양사는, 원효 대사의 '해골바가지 물' 설화와 유래가 깊은 절이다. 원효가 의상과 함께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다가 지금의 화성시 상안리에 위치한 당성(일명 당항성)의 토굴 속에서 하룻밤을 노숙하게 된다. 캄캄한 새벽에 갈증이 나서 주변을 더듬거리려보니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어 시원하게 마셨다. 날이 밝아 그것을 보니 해골바가지였다. 대경실색과 동시에 환연대오했다. 의상은 당나라로 향하고 원효는 발길을 돌렸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원효는 하산길에 화산에 들러 지세가 빼어난 이곳에 갈양사를 창건했다. 이곳 주민들은 원효가 득도한 토굴이 당성 어딘가에 있다고 믿고 있다.

정조는 경기도 양주 배봉산에 있던 부친의 묘소를 천하제일의 복지(福地)라는 화산으로 옮겨와 현릉원(후에 용릉으로 승격)이라 했다. 1790년(정조 14)에 보경 스님을 팔도도화주(八道都化主)로 삼아 팔도 관민의 시전(施錢) 8만7000여 냥을 거두어 갈양사 옛터에 145칸의 사찰을 창건했다. 이 절은 사도세자의 능 현릉원에 명복을 빌어 주는 능사(陵寺)로 창건됐다. 낙성식 전날 밤 정조가,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꿈을 꾸었다하여 용주사로 이름을 지었다. 용주사는 정조의 불타는 효심이 응결된 명실상부한 효행의 본찰이다.

용주사는 전통적 가람배치양식이 아닌 궁궐의 전각배치 방식을 채택한 독특한 사찰이다. 대웅보전 왼쪽에 있는 효성전에는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정조와 효의왕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효성전 앞에는 부모은중경탑이 서 있다.

정조의 효성이 어찌 개인 정조에게만 국한된 정신이라. 당시의 민백성은 물론 오늘날을 사는 후대에 게도 중요하고 절실한 귀감이다.

'부모님의 지중한 열 가지 은혜'는 소멸시효 없는 가르침이다.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니라 역사와 함께 공존해야 할 애장곡이다. 다시 한 번 새긴다.

회담수호은(懷談守護恩: 품에 품고 지켜주시는 은혜) 오랫동안 인연이 귀중하여 /금생에 와서 어머니 뱃속에 몸을 맡기네 /달이 지나면서 오장이 생기고 /일곱 달로 접어들어 육정이 열리네 /몸이 무겁기는 큰 산과 같고 /가고 서고 할 때마다 바람조차

결을 내며 /세단웃이러곤 입어 보지도 않고 /단장하던 거울에는 먼지만 쌓여 있네.

인산수고는(臨產受苦恩:해산함에 고통을 이기시는 은혜)

임태한 지 열 달이 다가오니 /해산의 어려움이 아 침저녁으로 압박했네 /사날이 중한 병든 사람 같고 /사날이 정신이 혼미해지네 /무섭고 두려운 마음 표현하기 어려워 /하얗게 눈을 흘려 옷깃을 적시네 /슬픔을 머금은 채 친척에게 말하기를 /이러다가 이 몸 죽을까 겁이 나오.

생자망우은(生子忘憂恩: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는 은혜)

자비로우신 어머니가 그대를 낳을 때에 /오장이 모두 터지고 갈라지듯 했고 /몸과 마음이 고통으로 혼미해 졌네 /흐르는 피는 양을 잡은 듯하지만 /날은 아기 건강하던 말 들으니 /산갑고 기쁜 마음 비길 데 없네 /기쁜 마음 가라앉고 슬픈 마음 다시 일어나니 /아픔과 괴로움이 온 몸에 사무치네.

궁궐 전각배치 본따 가람구성, '효행본찰'

'부모님 은혜' 소멸시효 없는 가르침

연고토갑은(咽苦吐甘恩: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뱉어 먹이시는 은혜)

부모의 은혜 깊고도 중하여 /사랑하심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네 /좋은 음식 마다하니 무엇을 잡수시나 /쓴 것만을 삼키셔도 그 얼굴 밝으시네 /지중하신 그 사랑에 솟는 정이 없고 /은혜 더욱 깊으시어 더욱더 애절하네 /어린 자식 배부르게 하려고 /자비로운 어머니 배고픔도 마다 않네.

화간취습은(化乾就濕恩:마른자리 아기 눕고 젖은 자리 누우신 은혜)

어머니의 몸은 모두 젖더라도 /아기는 언제나 마른 자리에 누이시네 /젖으로 아기의 주린 배를 채워 주시고 /비단 옷소매로 찬바람 막아 주시네 /한결같은 사랑으로 잠조차 깨하시고 /아기의 재롱에서 기쁨을 찾으시네 /다만 아기를 편케 하려고 /자비로운 어머니는 편함을 원치 않네.

유포양육은(乳哺養育恩:젖을 먹여 길러주시는 은혜)

자비로우신 어머니 땅과 같고 /근엄하신 아버지 하늘과 같네. /고루고루 퍼신 은혜 똑같이 베푸시니 /어머니의 아기 사랑 그 역시 한뼘일세. /눈이 멀다 해도 미워하지 않고 /손발이 없어도 싫어함 없네. /뱃속에서 길러 친히 낳은 자식이라 /은총일 아끼시며 사랑을 베푸시네.

세탁부정은(洗濯不淨恩: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은혜)

생각하니 지난날엔 고왔던 그 얼굴에 /땀이 있는 자태는 깊고도 소담해라. /세취빛 두 눈썹은 버들도 부끄럽고 /두 뺨은 분홍빛 연꽃보다 뛰어나네. /은혜



정조가 심었다는 회암나무가 최근 밀려 죽었다.

깊이 더할수록 고운 빛 바래지고 /씻고 닦고 하신느라 손발이 거칠었네. /아들딸을 사랑하는 한마음 쏟는 동안 /자비로운 어머니 주름살만 가득하네.

원행여념은(遠行憶念恩:멀리 떠나면 걱정해 주시는 은혜)

죽어 헤어짐도 실로 잊기 어렵지만 /살아서 못 만 남도 또한 가슴 아파하시네 /아들딸이 집을 떠나 먼 길을 가게 되면 /어머니의 마음 또한 그 곳에 함께 있네 /밤낮으로 자식 쫓아 마음이 따라가니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 천 줄기 만 줄기세 /원승이가 울며 불며 새끼를 그리듯이 /자식 생각에 애간장이 다 끊어지네.

위조악업은(偽造惡業恩:자식을 위해서 굶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은혜)

어머니의 크신 은혜 강산과 같아오니 /깊고 중한 그 은혜 값을 길 아득하네. /자식 고생 대신 받기만 원하시니 /자식이 고생하면 어머니 마음 편치 않네.

/아들딸 먼 길 떠난다는 말을 듣고 /다니다 밤이 되어 찬 곳에 눕지 않나 /자식들이 잠시라도 고통을 받을 세라 /어머니는 오래도록 마음을 졸이시네.

구경연민은(愧竟憐愍恩:말까지 염려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

어머니의 크신 은혜 깊고도 중하여라. /은혜와 사랑을 끝없이 베푸시네. /얕고 서나 자식에게 마음이 따라가니 /떨거나 가깝거나 마음은 자식에게 있네. /어머니 연세 높아 백 살에 이르러도 /팔십된 자식을 항상 걱정하시네. 이 같은 부모 은혜 언제쯤 풀길런가 /묵음이 다한 뒤 그때야 떠나리라.

'산신이 부처진 이름이여 /...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김소월의 '초혼' 보다 더 곡진한 노래다.

글=이우상(소셜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승 무 **조지훈**

얇은 사 하이안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라리니 깎은 머리 박사 고깔에 감추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적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대에 황촉불이 알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일새려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서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씨 보선이어

까이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면하늘 한개 별빛에 모두우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아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접어 뽕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 양 하고

이발사 귀뜨리도 지새우는 삼경인데 얇은 사 하이안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소 리

세상을 떠나 세상의 소리를 풀어내다

송광사에서 10여 년 동안 수행의 한 방편으로 수련회를 이끌었고 거금도 섬으로 들어간 뒤 풍문으로 혹은 신문기사로 접하던 스님의 그간 이야기

스님이 세상에 「소리」를 내 보임은 쪽빛 하늘 같이 푸른 바다를 벗 삼아 텅 빈 가슴으로 욕심 없이 보낸 세월의 흔적을 홀로 간직하기엔 너무나 큰 아쉬움이 절절히 사무치겠다 싶어서겠지요.

“한동안 괴롭힘의 세월을 보낸 후에 世上 밖으로 나와 허물을 벗고 시원스럽게 울어대는 매미처럼 道伴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구려!”

- 수불 스님의 추천사 중에서

저자_ 일선 스님
신국판 양장본
12,000원

일선 스님
일찌기 의문을 품고 조계산 송광사에서 범종 화상을 은사로 득도 중앙승가대학 졸업, 봉암사를 비롯 제방선원에서 정진 송광사에서 10여 년간 수련회를 이끌었으며 거금도에서 인거 정진 중 금천선원 선원장

에세이 식으로 잔잔하게 풀어간 글들은 모두 한 곳으로 가 닿는다. 수행이다. 파도소리도 갈매기 울음도 이음모를 허브, 등대도 눈길 닿고 발길 가는 것 모두가 수행과 연관되어 있다.

- 불교신문

서울의 유명 꽃집에 전시된 매끈한 장미가 아니라 산길에서 마주한 청초한 야생화라거나 활까요, 심지어 선의 지혜로 풀어 쓴 한편의 아름다운 서정 시라고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스님의 글을 읽다보면 간혹 거금도의 모래밭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겁니다.

- 법보신문

망망한 바다에서 나침반이 있다는 안도감은 방향의 희망을 암시하듯 에세이 <소리>는 인생의 곱혀한 나침반이 되고자 한다. 파도소리를 도우(道友) 삼아 세월의 바람에 밀릴한 하심을 떠난다.

- 현대불교신문

이 책에서 "마음이 부처라고 분명하게 믿고 깨달으면 사람마다 부처이므로 생각이나 수행방편, 하는 일이 다르다고 다를 일이 없을 것"이라며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바다를 배우라"고 강조한다.

- 한국경제신문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736호 전화. (02) 2198-5151 전송(02) 2198-5153